



## “사랑으로 다시 지어지는 집, 새로 시작되는 삶”

### - 잔젤이네 새 집을 소개합니다 -

4월말, 필리핀 중부에 규모 6.1이상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당시 클락 공항이 폐쇄되고, 도로들이 유실되는 등 앙겔레스 지역에도 큰 피해가 있었는데, 메신저센터에 나오는 아이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가정은 잔젤이네 였는데, 이 집은 다른 집들과 달리, 집안에 당장 집을 고치고 수리할 남자 형제가 없어서 더욱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앙겔레스에 사는 박잔젤 아들은 태어나서 4살 때까지 아با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با에게 또 다른 필리핀 애인이 생기자 아바는 떠났고, 홀로 남은 잔젤의 엄마는 친정댁으로 들어가서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잔젤의 외할머니는 앙겔레스의 한 변두리 작은 산등성이에 바나나 나무로 된 집을 짓고 살았는데, 지난해에 국가에서 지급해준 벽돌로, 처음 집 같은 집을 짓고는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지진으로 집이 반쯤 무너지자 당장이라도 붕괴될 위험에 놓였고, 도저히 안에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집밖 나무 밑에 흠이불로 텐트를 치고 며칠을 지냈습니다. 곧 우기를 앞두고 있던 시기라 이 천막마저 비로 다시 무너질까 노심초사 하던 중 결국 집을 다시 짓기로 결정하고 후원 모금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한국의 한 교회(진관감리교회 이현식 목사님)의 후원과 주변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6월, 그곳엔 전보다 더 튼튼한 집이 세워졌습니다. 예전 집은 기둥도 없이 블록만으로 쌓아서 쉽게 무너졌지만 새로 지은 집은 한쪽 벽에 3개씩 콘크리트 기둥을 만들어 세웠고, 튼튼하게 철근도 넉넉히 넣어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부터 날아온 사랑의 마음들은 단단한 벽돌들과 함께 차곡차곡 쌓아 올려져 앞으로도 이 집을 든든히 지켜줄 것입니다. 모두의 따뜻한 기도와 섬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메신저 사역보고 〈양겔레스 센터〉



7월부터 양겔레스의 센터 장소가 잠시 근처의 하베스트 교회(Balibago Harvest Church)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썸머캠프(5월)는 그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것으로 시작됐는데, 물놀이와 바비큐 까지 여느 때와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10월이면 이 교회의 임대기간도 만료되어 다시 이사를 가야하는데, 안정적인 새장소가 찾아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잠시 임시로 사용하는 공간이지만 이 기간 동안 잘 연합되어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더욱 단단해지고 다음 사역의 멋진 도약을 위해 준비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교복과 학생화가 없어 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 학기가 시작되는 6월에는 유치원부터 대학생까지의 아이들에게 각각의 학교에 맞는 교복과 학생화를 지원해주었습니다. 12명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야김은 올해 AUF약대에 합격하여 미래의 약사가 될 공부를 하게 되었고, 지난 4년간 메신저 장학금을 통해 홀리양겔대학교 상담심리학과에 다니던 한나는 이번에 졸업하며 멋진 상담치료사로 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졸업하고 입학하는 많은 코피노 아이들의 꿈과 비전을 응원합니다.



토요학교는 한글공부 수업 시간을 통해 아이들의 실력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코피노 합창단에서는 저학년 (1~3학년) 아이들 5명이 충원되어 합창시간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더욱이 이 아이들은 매주 멜로디언도 배우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연주 실력을 한껏 뽐내게 될 날을 기대하며 매일매일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메신저 사역보고  
〈세부 센터〉



가장 더운 5월, 필리핀은 여름방학기간을 갖습니다. 세부 센터에서는 더위에 지쳐있는 아이들이 즐겁게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놀이공원과 바닷가로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세부하면 단연 푸른 바다를 떠올리기 쉽지만 그만큼 고급 리조트들로 둘러싸여있어 의외로 코피노 아이들이 바다를 경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엔 막탄 비치로 떠나 드넓은 바다와 함께 큰 꿈과 비전을 품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역시 물놀이! 6월에 근처 수영장을 찾아 신나게 물장구를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저녁 열리는 방과 후 공부방은 5명의 교사들과 함께 늦은 밤까지 학업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8월부터는 매주 금요일마다 한국어교실도 시작되었는데, K-POP의 인기와 더불어 아이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높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는 함께 카네이션을 만들고, 감사한 분들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졌는데, 장학수혜자인 신애와 지수는 특별히 후원자분들께도 감사인사를 전해왔습니다.



7월에는 교사 단합대회를 겸해 '탐스힐'이라는 전망대로 리더십 트레이닝을 다녀왔습니다. 현지 스태프들과 함께 그간의 애로사항을 듣고 교사로서의 보람 등을 나누며, 맛있는 식사까지 함께 하니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또한 현지 센터로 여러 후원의 손길들이 이어졌는데, '콤마'라는 한인 빵집에서 코피노 아이들을 위해 일주일에 한번 이상 맛있는 빵을 듬뿍 후원해주시기로 했고, '닥터큐'라는 식수업체에서도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맘껏 마실 수 있도록 넉넉한 후원을 약속해주셨습니다.



메신저 사역보고  
〈본부 및 사역지 기타〉



메신저는 늘 주변의 많은 도움과 풍성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 사무실에는 늘 후원자분들이 보내주신 물품들로 가득한데, 그간 선박으로 많은 양을 한 번에 보내려다 보니 비용이 만만치 않아 배송까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앙겔레스에서 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앵그리크랩 대표)께서 선뜻 배송후원을 희망하셔서 그동안 사무실에 있던 아동의류(고드래봉, 오진혁 대표)와 물러운동화(경주모다아울렛S마켓, 이태경 대표), 샌들(아세안선교 신학교 허요한 학장) 등을 현지까지 무사히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4월 23일에는 사역 홍보 행사의 일환으로 글래드라이브 강남 호텔에서 ‘행복나눔식탁(테이블미팅)’이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소효근 대표(컬리넨홀딩스) 부부, 백승주 대표(비즈넷타임스), 그리고 배우로도 활동하시는 이진우 목사, 이응경 사모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메신저 사역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사역지 협력 업무로는 한국의 청년 미디어봉사 단체 ‘리듬오브호프’에서 취재 요청을 하여 앙겔레스 센터를 연결하여 8월에 촬영을 진행했고, 영상을 통한 모금 후원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세부로는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감리교 중앙연회 여성교회팀 12명이 센터에 방문하여 코피노 엄마들(25명)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의 주된 양육자인 그들이 여성과 엄마로서의 정체성과 역할 등에 대해 나누며,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혜롭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들에 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코피노 아이들 뿐만 아니라 엄마들도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세부 - 지호 할머니(아미), 암 수술 후 회복 중

지난 4월호에서 소개되었던 지호 할머니, 아미 아미의 갑상선암 수술이, 현지 한 익명의 후원자의 수술비 후원을 받아, 5월에 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5시간에 걸친 수술을 마친 후, 6월에는 3박4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방사선 치료까지 잘 마쳤습니다. 현재는 퇴원 후 회복 중에 있는데, 앞으로 약물치료 등이 더 병행되어야 합니다. 아미가 힘든 시간을 잘 극복하고 완쾌할 수 있도록 계속 더 기도 부탁드립니다.



### 세부 - 안젤리 여동생, 장례식

평소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던 안젤리의 여동생은 7월에 갑작스레 증세가 악화되며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카톨릭인 필리핀은 기본적으로 천주교식 장례 절차를 따르는데, 현지 선교사님께서 특별히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기독교식으로도 장례예배를 집례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곤 필리핀의 전통에 따라 꽃과 비스킷, 소정의 조의금을 전달하며 위로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가정방문을 하며 기도해주고 있는데, 안젤리네 가정의 위로와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



### 세부 - 신재와 안드레 남매의 피부병 치료 중

대부분 빈민가에 살고 있는 코피노 아이들은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보니 피부질환에 매우 취약합니다. 최근 '크리스'라는 아이도 머리에 피부염이 생겨 치료중인데, 라혹 산속에 살고 있는 신재와 안드레 남매는 다리에 심한 세균성 감염이 발생되어 현지 사역자님께서 지속적으로 보살피시며 치료과정을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비상약품들과 치료 약들이 구비될 수 있도록 지원 및 기도 부탁드립니다.



### 앙겔레스 - 저스틴 리, 파상풍 치료 후 퇴원

쓰레기장 마을에 살고있는 저스틴에게 7월에 응급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길고양이가 핏줄이 상처가 난 곳이 오염되어 파상풍이 왔습니다. 고열과 구토, 열꽃과 호흡 곤란까지 와서 위험한 상태였는데, 바로 병원에 입원하여 큰 고비를 넘겼고, 다행히 이를 만에 잘 회복되었습니다. 병원비도 바랑가이에서 빈민들에게 지원하는 진료혜택을 받아 큰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스틴이 다시 여느 또래 아이들처럼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선교 보고 I

여름, 세부로의 특별한 선교여행 - 예일교회 선교팀

“한글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내년 여름에 또 만나자!!”



'세부(CEBU)'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일까요? 푸른 바다, 드넓은 해변, 멋진 리조트. 휴가철 직장인들과 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여름에 가장 기대하는 것은 아마 그런 장소에서의 한가로운 여행의 시간이지 모릅니다. 바쁜 일상 속, 맘 놓고 쉬고, 한껏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달콤하지만 한정적인 시간이 주어지는 때가 바로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올 여름, 세부에는 조금 다른 목적으로 메신저 센터를 찾은 이들이 있습니다. 먼저, 예일교회(인천) 청년선교팀! 이종철 목사님 외 청년부 소속 10명은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간 세부 센터에 방문해 뜨거운 섬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방문한 이 선교팀은 특별히 올해에는 아이들과의 만남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공연과 게임, 성경학교 등을 진행했습니다. 행사에는 현지에서 80여명의 인원이 참여하는 등 관심이 높았는데, 비 오는 곳은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6가정을 방문하며 선물을 전달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현지에서 필리핀 선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문화 체험 및 선교세미나, 유적지 투어 등도 함께 진행하여 더욱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내년에도 다시 방문하기를 희망하며 돌아갔다고 하니 아무래도 그새 아이들과 정이 많이 든 것 같습니다. 8월부터 공부방에서 매주 금요일 한글수업도 시작했다고 하니 내년에는 한국어로 서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여름, 세부로의 특별한 선교여행 - 열림교회 선교팀  
“한복을 입고 세부에서 한국 전통놀이를 신명나게~”



8월에는 열림교회 선교팀이 17명이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간 센터에 방문했습니다. 열림교회는 현재 세부 센터에 담당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김정석 목사님의 파송교회로, 이번에 특별히 이인선 담임목사님과 사모님, 선교국 장로님을 포함하여 교역자분들과 성도분들이 고루 함께 든든한 지원군으로 찾아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한 깜짝 선물로 예쁜 한복을 구입해 오셨는데, 난생 처음 한복을 입고 머리까지 예쁘게 땀은 아이들이 연신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첫째날, 한복을 입은 아이들은 투호와 비석치기 등 한국 전통놀이를 하고 국민간식! 김밥도 손수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슬슬 허기가 진 아이들을 위해 준비된 떡볶이와 초청 가래떡은 그야말로 꿀맛이었습니다. 둘째날은 자신만의 스탬프를 만들어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진 후, 10가정 정도의 아이들 집을 방문하여 기도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생일을 맞은 친구의 축하파티도 열렸는데, 어느 때보다 많은 축하에 기뻐했습니다. 그리곤 헤어지기 아쉬웠는지 서로 많은 사진을 찍어 간직했습니다. 멀리 떨어져있지만 일상에서도 서로를 기억하고 추억하기 위해. 열림교회 선교팀도 내년 2월이면 재방문하신다고 하니, 아마 그때까지 계속 그리워하게 될 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 세부 센터와 코피노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전해주고 가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 공지사항

1. 제 6회 메신저 멤버스데이는 2020년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아이들과 함께 하는 멋진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내년 초에 발급되는 2019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분들이나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최초로 신청하지 않으셨던 분들은(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입 필요)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마음을 모아주세요

1. 각 지부(양겔레스, 세부) 사역자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김종란, 김정석, 유희선 선교사님)
2. 빈민가에 살며,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피부병 및 염증, 영양부족 등으로 고생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약품 및 영양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3. 각 사역지의 센터 장소가 안정적으로 구해져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당장 10월이면 이사해야하는 양겔레스와 내년 5월에 이전할 장소를 찾아야하는 세부 센터를 위해)
4. 메신저 사역에 필요한 재정들이 넉넉히 채워질 수 있도록

## 후원계좌

1. 신한은행 100-025-948669 / 예금주 : 사단법인 메신저인터내셔널
2. 외환은행 630-272206-458 / 예금주 : (사단)메신저인터내셔널